

KMI

북한해양수산물리뷰

2025년
9월호

발간년월 2025년 9월 31일

발행인 조정희 원장

총괄 윤인주 해양안보전략연구실장

감수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자료문의 글로벌전략연구본부 해양안보전략연구실 정다현 연구원

TEL +82-51-797-4747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기획 칼럼

3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정책 전망

이상민(고려대학교 특임교수)

동향 분석

10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후 동향

김한규(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차장)

소금에 의존하는 체제, 북한 수산물 유통의 민낯

이상용(테일리엔케이 AND센터 디렉터)

북한 알기

24

북한 문학예술에 표상된 풍어의 양가성

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단천의 이중주: 마그네사이트에서 마리나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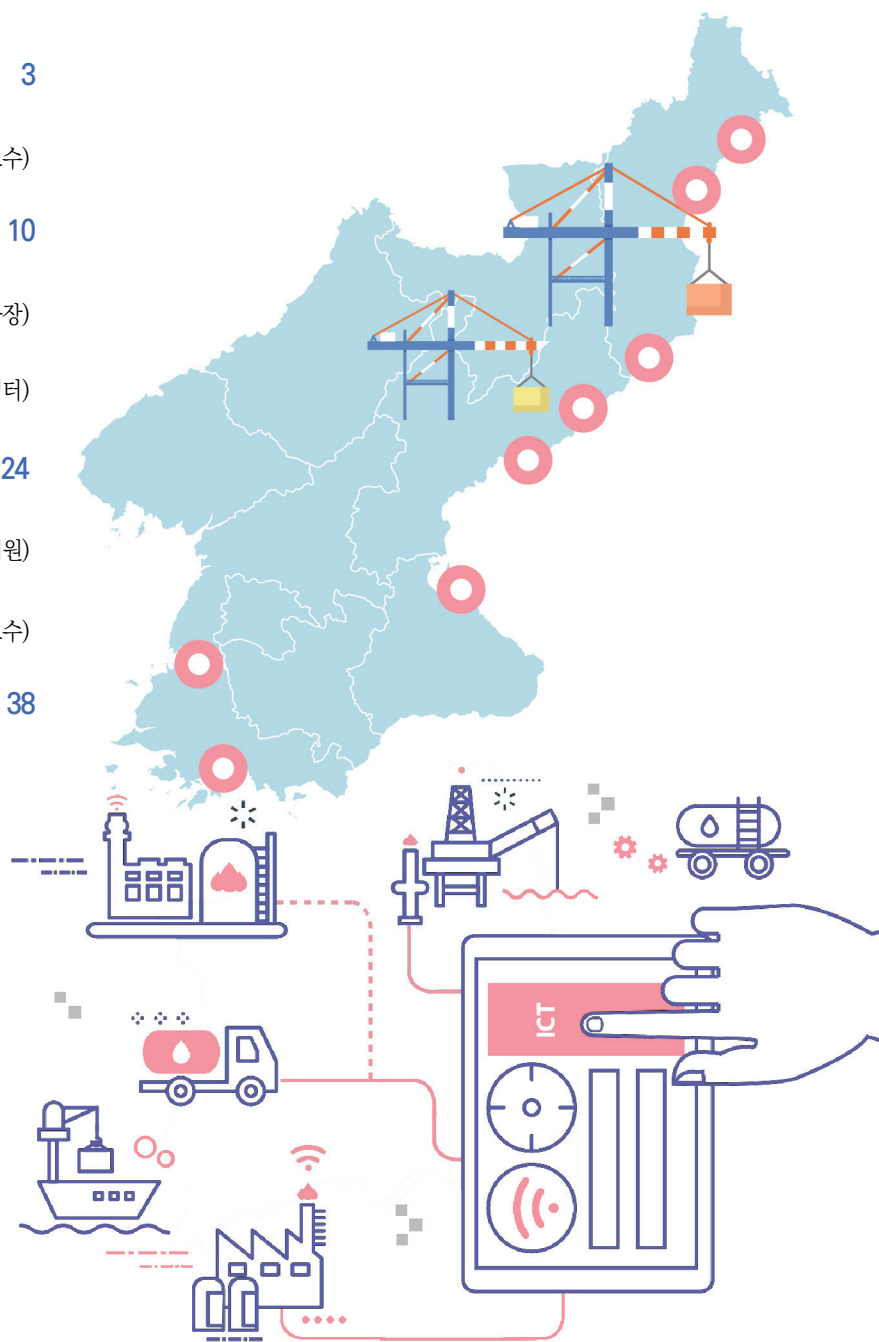
강채연(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북한 소식

38

북한 언론 보도 (2025년 7~9월)

NK News 보도 (2025년 7~9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내용 및 전송 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해양안보전략연구실
정다현 연구원 Tel_051-797-4747, E-mail_dhj82@kmi.re.kr

※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상기 전화번호 및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이번 호 소개

2025년 9월호 북한해양수산리뷰는 광복 80주년과 국정과제 대응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기획 칼럼 1편, 동향 분석 2편, 북한 알기 2편, 그리고 북한 최근 보도 정리로 구성하였다. 이번 호는 북한 해양을 정책·산업·생활·문화 차원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획 칼럼에서는 이상민 교수(고려대학교)가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정책 전망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분석한다.

동향 분석에서는 김한규 차장(한국관광공사)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장 이후 실제 운영 현황과 관광객 유치 동향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상용 디렉터(데일리NK)는 북한 수산물 유통 구조와 가격 형성 과정, 식량 보조 수단으로서의 수산물 정책 변화를 짚어본다.

북한 알기에서는 이지순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바다와 어촌 주민의 삶을 주제로, 북한 문학예술 속 ‘풍어’의 상징성과 그 이면에 담긴 결핍과 생활의 세부를 조명한다. 우표·판화·SF 소설 등을 통해 북한 체제의 바다 인식과 문화적 표상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강채연 교수(국립통일교육원)는 북한의 해양도시에서 동해 연안의 산업·해양 복합도시인 단천시를 중심으로, 광물·항만·양식·관광을 융합한 ‘에코-마리나’형 남북협력 모델을 제안하며,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과 교류 가능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북한 소식에서는 북한 매체 및 NK News 보도를 통해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보도된 북한의 해양·수산·해운·항만 관련 기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번 9월호는 광복 80주년을 기점으로, 남북 해양 공존과 협력의 조건을 모색하고 북한 해양 공간의 산업, 정책,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북한 매체 및 외신 분석을 균형 있게 담았다. 최근 북한의 해양수산 분야의 최신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획 칼럼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정책 전망

이상민(고려대학교 특임교수)

unisang@korea.ac.kr

1. 들어가며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가 역대 정부 중 가장 최악인 상황에서 출범했다. 남북 간 대화 없는 관계 단절 상태가 7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개 국가’로 규정하여 동족과 통일이라는 용어를 지우고 핵 개발, 핵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며 대남 위협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이 요청되는 것은 당연하다.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 북중러 대 한미일 등 신냉전구도가 우려되는 정세 속에서 남북 간 군사적 대립과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가 더욱 밀착되는 현 상황이다. 이는 역내 정세와 질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평화와 경제적 번영, 발전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현실과 경제·무역 구조를 감안할 때 역내 정세 불안정성과 유동성의 심화는 우리의 안보를 흔들고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선언하고, 제4조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3항에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공언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상징적·선언적 의미를 함께 가진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은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기획 칼럼

목표와 남북관계 및 통일 분야 추진 전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혀진 바가 있고, 유엔총회 기조연설, 외신 인터뷰 내용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이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는 23대 추진전략 중 남북관계 및 통일 분야 추진전략으로 통일부 소관 5대 국정과제와 함께 제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상징적·선언적 차원과 실효성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의미와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

1) 대북정책 주요 내용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지향한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평화 공존을 위해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에서 시작하여 대화와 민간교류, 인도적 협력 재개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현과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북한 자료 공개를 확대해 국민이 대북·통일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 간 평화 공존과 번영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통일부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남북관계 및 통일 분야 5대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 공존 제도화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적대적 대결적 행위를 청산하고, 화해·협력·평화공존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우발 충돌 방지 및 재난,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을 우선 의제로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대화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 간 군사적

기획 칼럼

긴장완화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효력을 정지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 조치를 실행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락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에 따라 수준별·분야별로 남북대회 개최를 수준별·분야별로 정례화, 제도화하여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남북 간 평화 공존의 원칙과 규범 마련,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②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이재명 정부는 민간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법, 기금법 등을 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부와 민간 간 협업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물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체육·종교 분야 국제행사와 남북 합동 공연, 전시회 등을 접목한 다층적 융합적 교류를 통해 남북 간 접촉면을 넓히고, 거레말큰사전 편찬·개성 만월대 공동 조사 등 중단되었던 사업 재개를 모색하며, 민족문화유산 공동보존·활용을 위해 유네스코를 통한 협력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협업으로 영양·백신, 보건, 물·위생, 농축산 분야 지원을 추진하고, 감염병 및 산림협력 등은 기존 합의사항부터 협의를 재개하며, 기후 변화로 인해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위기에 대비하여 남북을 포함한 다자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③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역대 정부에서 빠지지 않고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이다. 다만 접근방식이나 추진 주체에 차이를 보여왔는데, 이재명 정부는 인도적 대화 복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화를 통해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 확인과 화상 상봉, 고향 방문을 추진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자유권과 사회권을 병행 증진하는 방향으로 민간 주도의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 역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 추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

기획 칼럼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등을 활용,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 통합될 수 있도록 자조·자립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거주지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일자리, 교육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④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정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국민 합의와 지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 시민사회와 협업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체계를 구축, 다양한 정책의제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대북·통일정책을 두고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진 지금, 정부가 과연 이념과 진영에 관계없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과 단체를 공정하고, 균등하게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민간 주도로 평화·통일담론의 생산과 확산을 지원하고,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외연을 확장하여 우호적 통일환경을 조성하며,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 및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알권리에 맞는 북한자료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⑤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 성장의 미래 준비

끝으로 정부 부처, 국책연구기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통해 『(가칭)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을 마련하여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 동반 성장을 통해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특구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비무장지대(DMZ) 보존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생태·평화 관광지구 개발 지원이 남북협력지구 개발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중단된 남북경협 사업의 발전적 재개를 모색하고, 남북 및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다자 차원의 새로운 경험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기획 칼럼

2) 평가 및 전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통일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대내외에 적극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에 착수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를 선언하며, 대립과 적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8월 25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정세 변화를 위한 단초로서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요청하고,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일체의 적대행위 근절 등 3원칙을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모색하여,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여,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공표하였다. 이처럼 비핵화 문제는 단기간 해결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기초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 '축소', '폐기'라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였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역내 긴장 관계, 정세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시기이다.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가와 대통령의 책무임을 감안할 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북·통일정책 추진기조와 기본 입장을 대내외에 적극 제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건은 정책의 실효성에 있다. 대북·통일정책의 상대가 있는 만큼, 북한의 호응 여부에 정책 이행과 성과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초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를 취했을 때, 북한이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하면서 분위기가 변화되는 듯 보였지만 이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북한의 부정적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20일, 21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연설에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재명 정부가 관계 개선, 평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흡수통일 야망이

기획 칼럼

보수정권을 능가함을 핵작전 연습·다영역 합동군사연습 확대 강화, 내년 도 예산안 군사비 8.2% 증가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비난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며, 비핵화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시간은 우리 편에” 있기에 핵 능력과 군사력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분간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으로 북한의 태도와 남북관계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언급은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대화의 실익이 없다는 북한의 내심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새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평가일 수 있다.

북한은 체제 생존이 최우선인 국가이다.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주변 강대국에 휘둘릴 수 있다는 생각이 짙다. 또한 과거 소련과 중국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방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며 믿을 만한 것은 자신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바라는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좀처럼 대화에 나서지 않으며, 협상장에서 대등한 관계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고 실익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대화에 나서는 특성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러시아와 북한과의 밀착관계가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지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기에는 실익이 적으며,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고, 대내 경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판문점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트럼프 대통령의 APEC(경주) 회의 참가를 계기로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것도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흘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간 내,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이 대화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대화에 나서는 시기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기를 전후하여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한 한반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기획 칼럼

3.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이 남쪽과 대화에 부정적이기에 단기간 내에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는 않다.”며 “이런 과정을 추동함으로써 여러 과정이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방향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견지해야 할 대북·통일정책 추진의 일관성이다. 이는 역대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학계, 전문가 층이 일관되게 강조했던 것이기도 하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다.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위해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을 지원할 때, 취할 조치 목록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정부가 남북 간의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을 이야기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평화 공존’을 언급한다.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잡념을 털어버리고,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평화 공존을 이루려면,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북미대화를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사전 협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끝으로, 항상 강조해왔듯 대북·통일정책 추진 기반이 되는 것은 국민 합의이다.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적 대화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북·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을 쌓아 올리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처럼 여야 간 대립과 갈등 관계가 지속될 경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과거 보수, 진보, 중도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어 통일국민협약안이 마련되었지만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미진한 탓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반대 진영의 의견에 정부가 먼저 귀를 기울이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동향 분석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후 동향

김한규(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차장)

khg0811@knto.or.kr

1. 들어가며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기상정보에 따르면 2025년 9월 18일 원산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20도이다. 평년 월평균 기온을 보면 가장 더운 8월이 23.2도이고, 9월은 18.7도, 10월은 12.9도로 빠르게 떨어진다. 9월 하순에 접어들었으니 말 그대로 여름은 끝났다.

6월 24일 준공식을 연 뒤 7월 1일 공식 개장한 원산갈마지구는 대표적인 해양관광지이며 어느 해변 휴양지와 마찬가지로 여름 한철이 최성수기다. 한국보다 북쪽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여름 맞춤형 콘텐츠일 수밖에 없다. 2025년 현재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유일한 해외 여행사인 러시아 ‘보스토크 인투르’ 여행사 홈페이지에서도 8월까지의 원산갈마지구 상품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원산갈마지구는 계절성 관광 콘텐츠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6월 말 준공식 개최 소식을 필두로 8월 말까지는 북한 내국인의 원산갈마지구 관광과 휴양을 적극 기사화했던 북한 노동신문 지면에서도 원산갈마지구 해안가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던 북한 주민들 기사와 사진은 사라졌다. 물론 호텔과 다른 형태의 관광, 예를 들어 원산 인근 지역과 금강산지구의 단풍놀이를 나선 주민들의 숙박 장소로 원산갈마지구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원산갈마지구의 대표 콘텐츠인 해변 휴양은 이제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2025년 개장 첫해부터 원산갈마지구 수익이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북한 당국도 기대하진 않았을 터이다. 하지만 개장 이후 진행 경과에 북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듯하다. 북한 최대 관광지구 건설 실적을 2025년 업적으로만 내세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최소한 몇 십 년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수익분기점을 넘길 터인데 난망이다.

동향 분석

이에 이번 지면을 통해 북한 당국의 고민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올해 원산갈마지구 관광객의 양대 축이었던 러시아 관광객과 북한 내국인의 원산갈마지구 관광 동향을 살펴보고 남북관광 차원의 접근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2. 원산갈마지구의 러시아 관광객

“우리 식의...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¹⁾라고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원산갈마지구는 개장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중에서는 러시아 관광객만 방문했다. 현재 북한 관광이 가능한 국가가 러시아뿐이기 때문이다. 북측은 공식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원산갈마지구 관광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러시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및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북러 밀월 관계 속에 코로나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외래관광객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였다. 코로나 이후 2024년 2월 9일 시작된 러시아인들의 북한 관광은 2024년 1년간 881명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²⁾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인들은 2019년 406명, 2018년 391명으로, 각각 117.0%, 125.3%였으니 매우 큰 폭의 증가긴 하지만 절대 규모를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과 서방 관광객의 북한 방문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에 원산갈마지구의 대규모 휴양시설과 호텔, 신규 콘텐츠들은 러시아인들만 경험했다. 이에 영국의 BBC 방송은 “러시아 관광객만 갈 수 있는 북한의 ‘완벽한’ 해변 휴양지”라고 보도하기도 했다.³⁾

7~8월 기간 최소 2차례의 관광단체가 방문한 뒤 8.25~9.1 기간에도 단체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실제 방문에 나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7.11~13(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을 원산에서 만나기도 했다. 북한으로서는 원산갈마지구 홍보의 기회로 노렸을 법하다.

북한 외국문출판사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안내’ 리플렛 기준으로 6개의 호텔, 37개의 여관이 들어서 2만 명이 숙박 가능한 능력의 거대한 관광단지가 국제제재 속의 북한이 건설했고, 정보공개가 제한적이다 보니 원산갈마지구를 직접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에 대한 언론매체들의 관심이 뜨겁다. <[표-1] 참고>

동향 분석

[표-1]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주요 시설

구 분	명사십리휴양구역-1	명사십리휴양구역-2
호텔(6개소)	묘향호텔, 참매호텔, 갈매기호텔, 명사십리호텔 등 4곳	친선호텔, 을밀봉호텔 등 2곳
여관(37개소)	리상여관, 열광여관 등 16곳	룡봉여관, 갈마민성여관 등 21곳
음식점(35개소)	리상맥주집, 리상식당, 리상청량음료점 등 22곳	고려인삼차집, 갈마려명식당, 원산오가산식당 등 13곳
쇼핑/기념품점 (29개소)	만수대창작사미술관, 전우관광기념품상점 등 16곳	갈마상품전시관, 명사십리백화점 등 13곳
놀이/운동시설 (12개소)	아리랑전자오락장, 명사십리실내물놀이장 등 6곳	목란오락관, 건강운동관, 갈마영화관 등 6곳
기타(12개소)	원산갈마관광안내소, 갈마배정박장 등 5곳	갈마통신국, 락원천막관리소 등 7곳

[출처] 북한 외국문출판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리플렛

10~20명 규모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관광객들은 전반적으로 “호화롭지만 어색”하다는 반응이다.⁴⁾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소개한 관광객들의 방문기에 따르면 원산갈마지구 시설은 유럽 리조트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화롭지만 관광지에서 만난 북한 사람들이 모두 러시아어를 알아듣고 완벽하게 말하기까지 해서 이들이 실제 관광객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또 다른 러시아 관광객은 음식이 매우 풍족했고, 러시아에서 구하지 못하는 어그 브랜드 신발까지 샀다고 밝혔다.⁵⁾ 또한 어디를 가든 항상 인명구조요원, 웨이트리스, 의사 등이 있었다며 “모두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무슨 부탁이든 바로 들어주기에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13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러시아 관광단체의 원산갈마지구 관광 소감을 전했다.⁶⁾ “해안 전체가 텅 비어 있었다.”며 “리조트 전체에 손님이 우리뿐인 것 같았다.”는 반응이다.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물건 결제는 예치금을 넣어둔 전자팔찌 형태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편 원산갈마지구 관광상품 가격은 7.7~7.14(7박 8일) 일정에 RUB35,000 + USD1,400(약 250만 원)이었다. 항공편을 통해 평양으로 입국해서 평양에서 원산까지 항공으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원산갈마지구에서 3~4일 체류하는 스케줄이다. 다만 이 단체의 경우 당초 항공 이동으로 안내됐으나

동향 분석

최종적으로는 기차로 이동을 했다. 이외 보스토크 인투르 여행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8.25~9.1(7박 8일) 상품의 경우에는 북한 나선으로 입국하는 코스로 함북 경성에서 국내항공을 통해 원산갈마공항으로 이동하는 루트다. 3일간 원산갈마지구에서 일정을 보내는 상품으로 16명 이상일 경우 RUB20,000+USD800(약 143만원)으로 책정됐다. <[표-2] 참고>

[표-2] 원산갈마지구 러시아 관광상품 가격

기간	가격	주요일정/참고사항	포함
7.7~14/8일	(WSJ 보도) RUB35,000 + USD1,400(북한지불비용)	평양, 원산갈마/평양-원산 항공권 USD200	하동(추정)
8.25~9.1/8일	(3~5명) RUB20,000+USD1,250	(1일차) 블라디-하산-라선	북한체재비, 교통, 보험, 비자, 가이드
	(6~9명) RUB20,000+USD950	(2일차) 청진-경성 ※ 경성 → 원산: 항공	
	(10~15명) RUB20,000+USD850	(3-5일차) 원산갈마	
	(16명 이상) RUB20,000+USD800	(6일차) 경성 (7일차) 경성-나선 (8일차) 하산-블라디	

[출처] WSJ 기사 및 보스토크 인투르 여행사 홈페이지

3. 원산갈마지구에의 내국인 관광

오늘날 상당수의 국가에서 관광 콘텐츠는 내외국인용 구별을 하지 않는다. 물론 내국인과 외국인이 이용하는 콘텐츠를 구분하는 등 의도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 이용 대상을 엄격히 나눌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사회통제가 이뤄지는 국가의 경우 내외국인의 접촉을 막기 위해 관광콘텐츠 이용 대상을 나누는 경우가 있다. 또는 같은 시설과 콘텐츠라 하더라도 이용 지역과 기간 또는 시간을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원산갈마 지구는 이용객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전례 없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어느 특정 대상만 이용하도록 한다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수익 측면에서도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원산갈마지구처럼 대규모 모일 경우 숙박시설별만으로 내외국인을 분리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현재 외국인 관광객 수용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으로서는 원산갈마지구를 외국인 전용이 아니라 우선 내국인 대상으로 개장하여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향 분석

원산갈마지구는 현재 내국인 관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수십만 명의 내국인이 원산갈마지구 관광을 다녀갔다.⁷⁾ 이에 내국인들의 관광을 집중 조명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표-3]은 원산갈마지구를 관광하고 온 내국인 관련 기사를 정리하였다.

[표-3] 북한 내국인의 원산갈마지구 관광 관련 노동신문 기사 내역(2025.07.01~09.16)

연번	일자	제목
1	07.02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봉사 시작
2	07.03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사회주의조선의 무진한 창조력과 과감한 실천력을 뚜렷이 확증한 동해명승의 천지개벽 갈마반도의 명사십리에 세계굴지의 해안관광도시, 인민의 문화휴양지가 훌륭히 일떠선데 대하여
3	07.03	인민의 웃음소리 끝없이 울려퍼지는 동해의 명사십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4	07.10	세상에 둘도 없는 동해명승에 인민의 웃음 파도친다
5	07.10	향유자들은 말한다
6	07.16	어머니당이 우리 인민에게 선물한 동해기슭의 황홀한 관광지구에 행복의 웃음소리 넘친다
7	07.24	모든 것이 최상급인 인민의 명사십리
8	08.03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문화휴식터마다에서 인민의 기쁨넘친 웃음소리 울려 퍼진다
9	08.13	혁명학원 원아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었다
10	08.14	영화폭
11	08.17	꿈같이 흐르는 즐거운 나날에
12	08.17	명사십리에 인민의 웃음소리 날로 높아간다

[출처] 필자 노동신문 기사 정리

내국인 중심으로 원산갈마지구 관광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더해, 원산갈마지구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핵심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9차 당대회)를 화려하게 맞이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도가 맞물리며 원산갈마지구를 방문한 내국인 반응 관련 기사로 이어지고 있다. <[표-3] 참고>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국인 관광객의 출발지와 교통수단, 직업군은 매우 다양하다. 항공편으로 원산갈마지구 온 함경북도 주민도 있고, 신의주 제1중학교 부부교원, 평안북도 염주군의 농장원 부부, 함경북도에서 온 광부, 평안북도 동림군 농장원 부부, 자강도 강계시 건설여단 노동자, 황해남도 배천광산 노동자, 함경북도 청진 중앙동물원 직원들까지 전국 각

동향 분석

지에서 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북한 내의 요즘 인사말은 ‘명사십리에 가보았습니까?’라고 한다. 북한 대표 기관지인 노동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가감해야 하나 북한 내에서 원산갈마지구가 화제인 것은 분명하다.

사실 북한의 국내관광은 어제 오늘의 상황은 아니다. 북한도 2010년대 이후 국내관광 활성화를 의도하고 있다. 국내관광을 통해 재정수입 증가가 가능해지면서 국내관광은 장려 대상으로 변모했다. 무료로 제공하던 시설에서 입장료와 사용료를 받으면서 국가재정은 증가될 수 있다. 또한 북한 경제의 시장화 속에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신흥 부유층이 자본을 쟁여두는 것이 아니라 소비함으로써 경제의 혈액이 돌게 하는 데도 국내관광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관광 인프라, 버스, 여행사, 각종 서비스 시설들을 돈주들이 운영하게 함으로써 인프라 확충과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통제와 재정수입증대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지만 북한 당국의 무게추는 김정은 정권 이후 후자로 기울었다. 물론 시점별로 ‘부작용’이 강해지면 전자와 후자 사이에 조이고 푸는 과정은 반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3년 국가기밀보호법은 조이는 과정에서 나온 사회통제법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선형 우상향 흐름은 분명한 방향성이다.

국내관광 활성화는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기반 확대 및 홍보정책과도 맞아 있다. 관광 인프라는 북한 주민들에게 사회가 나아지고 있다는, 당국이 자신들을 신경 쓴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애민정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파간다, 통치 이념 중 하나다.

4. 원산갈마지구와 남북관광 재개 점점 가능성

그렇다고 원산갈마지구가 북한 국내관광만으로 당초 조성 배경이 충족될 수 있을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일 터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난망이다. 러시아 관광객만으로는 원산갈마지구 외래객 관광 활성화 달성은 어불성설이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최

동향 분석

근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변함없는 북중 관계’의 회복을 과시했기에 향후 중국 관광객 유치는 원산갈마지구의 단기적인 활성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의 방북관광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과연 원산갈마지구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관광객이 원산갈마지구 구까지 가는 루트로는 평양 관광객 및 변경 지역 관광객의 원산갈마지구 방문, 갈마공항 직항편을 이용한 방문, 크루즈 이용 방문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긍정적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연간 10만 명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원산갈마지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남측 관광객의 방문은 필수적이다. 원산갈마지구를 방문하는 안정적인 수원국으로 남측을 배제한다면 수익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미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개별관광이란, ‘우리 국민 중 관광 목적의 방북 희망자가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신청 진행하는 관광’을 의미하는데 북한 비자를 발급받거나,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측으로부터 남측 관광객을 허용받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는 2000년대 금강산관광처럼 군사분계선을 넘어 관광하는 형태가 아니라 중국 등을 경유하는 루트일 것이다.

개별관광 추진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그 첫 단초는 2019년 10월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시설 철거 지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창의적 해법’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개별관광은 그 해법의 일환으로 2019년 말 제기된 바 있다.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사전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 내용에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당부하며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거론했다. 일종의 사전정지작업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향 분석

물론 북한이 개별관광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7월 담화에서 우리 정부의 개별관광 등을 열거하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있는 노력”이라면서도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와 북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핵문제 등의 사안을 고려할 때, 단시일 내에 개별관광 추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원산갈마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측 관광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북한도 마중물 차원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한편 원산갈마지구를 통한 남북관광 재개 점점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은 ‘기대좌절 금지’다. 사실 엄밀히 분석할 때 원산갈마지구를 통한 남북관광 재개 또는 개별관광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 사회는 이를 솔직히 받아들이고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기대가 부풀려지고 실망과 좌절이 반복되어 남북관계에 냉소적으로 변해갈 것이다. 따라서 원산갈마지구를 남북관광 재개를 위한 마중물로 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기대 수준 관리를 통해 실패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명사십리에 인민의 웃음소리 날로 높아간다”, 『로동신문』, 2025.8.17.
- 2) “작년 방북 러 관광객 881명...기대 못 미쳐”, 『RFA』, 2025.2.7.
- 3) “러시아 관광객만 갈 수 있는 북한의 ‘완벽한’ 해변 휴양지”, 『BBC NEWS 코리아』, 2025.8.23.
- 4) “북한 원산갈마지구 방문 러시아 관광객들 ‘호화롭지만 어색해’”, 『MBC』, 2025.8.13.
- 5) “북한에 ‘짜통 스타벅스’ 등장... 커피 3잔에 3만 5000원”, 『뉴스1』, 2025.8.25.
- 6) “‘텅빈 해변에서 최고급 대우...’ 러 관광객 北원산 휴가 가보니”, 『연합뉴스』, 2025.8.2.
- 7) “명사십리에 인민의 웃음소리 날로 높아간다”, 『로동신문』, 2025.8.17.

동향 분석

소금에 의존하는 체제, 북한 수산물 유통의 민낯

이상용(데일리엔케이 AND센터 디렉터)

sylee@uni-media.net

북한은 이면이 바다이다.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포항을 비롯한 여러 항구가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바다에서 잡히는 풍부한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잡은 물고기를 제대로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냉장고와 냉동차량은 일부 국영기관만 가지고 있고, 민간 상인들은 뇌물과 편법에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은 소금에 절이거나 햇볕에 말려 저장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북한 수산물 유통 구조는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한계와 주민 생활의 현실을 드러내는 창(窓)이다.

권력 속의 첫 거래: 어부와 도매상인 관계

북한 어부들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곧장 시장으로 가져가기 어렵다. 대신 부두 근처에서 기다리는 도매상인에게 한꺼번에 넘기고 남은 물고기는 동네 주민들에게 헐값에 팔기도 한다. 이렇게 생선의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후 도매상인들은 화물차에 실어 내륙 도시로 옮겨, 시장 상인들에게 넘긴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간부'나 권력자의 개입 없이는 대량 유통이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수산물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권력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자원이 된다.

북한 시장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염장 어물로 신선한 생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뚜렷하다.

첫째, 냉동창고 비용 부담 때문이다. 최근 공장기업소 냉동창고에 1톤의 생선을 보관할 경우 한 달에 1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주민들의 소득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동향 분석

둘째, 냉동차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대부분 국영기관이 운영하며, 개인은 몰래 돈을 지급한 후 빌려 써야 한다.

결국 도매상인들은 소금에 절이고 햇볕에 말려 두는 것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택한다. 냉동고보다 소금이 더 믿을 만한 현실이다.

도매 상인들의 생선 운송 방법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겨울과 이른 봄에는 날씨가 서늘하여 생선이 쉽게 상하지 않으므로 화물차를 이용한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다. 반면 여름에는 높은 기온으로 신선한 생선을 운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주로 염장·건조 처리된 수산물만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상인들은 일부러 염장·건조 후 내륙으로 가져가서 비싼 값에 판매한다. 이는 주민들이 제철에 생선을 사서 대량으로 말려 두는 습관과도 맞닿아 있다.

통행증과 뇌물: 유통의 숨은 규칙

북한에서 개인 유통 모두가 불법이다. 생선을 싣고 장거리 이동할 때는 통행증(일명 여행증명서)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허가증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속원들은 사소한 트집을 잡아 시간을 끌고, 결국 상인들은 그 자리에서 뇌물을 건네야 한다.

어떤 상인은 “가는 길마다 얼굴을 터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한다. 미리 단속원에게 뇌물을 주고 관계를 형성해두면 검열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다. 이는 북한 시장이 국가의 통제를 우회하며 살아남는 방식이자, 체제 속 부패가 굳어진 관행을 보여준다.

북한 주민들은 소금 염장과 자연 건조를 통해 생선을 보관한다. 특히 제철이 아닐 때 팔면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염장하거나 말려 두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저장된 수산물은 내륙으로 운송되어 판매된다. 과거에는 내륙 지역에서 수산물을 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송금 시장과 교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전국 어디서든 수산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다만 여전히 냉장·냉동 보관은 큰 제약을 받고, 계절을 타는 구조 역시 변하지 않았다.

동향 분석

북한에서 젓갈이나 생선포 같은 수산물 가공은 공장보다 개인 가정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 주민들은 젓갈을 담가 저장하거나 직접 말린 생선을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오히려 공장 제품보다 개인이 만든 젓갈이 더 인기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가정 단위 자급적 생활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산물 가격은 생산량, 계절, 운송비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손전화)로 가격이 공유되면서 지역 간 가격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다. 고급 어종과 신선한 생선은 비싸지만 꾸준히 팔리고 도루묵 등 흔한 어종은 제철에는 값이 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량으로 사서 말려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품목의 다양성은 떨어지지만, 주민들의 수산물 소비는 꾸준하다.

사라진 개인 상인?...국가가 장악한 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개인 상인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2021년부터 북한은 모든 소비품의 유통을 강력히 통제하며, 개인이 물자를 마음대로 운반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수산물 유통업에 뛰어들었던 개인업자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항구에서 잡힌 고기를 도시로 운송하여 판매하는 일도 불가능해졌다. 대신 수산사업소나 협동조합 같은 국가 기관이 운송을 독점하며 사실상 개인은 배제된 상황이다.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어업 활동 자체가 크게 줄었고, 수산물 운송비도 오르면서 시장 가격은 더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북한 수산업 유통은 이전보다 훨씬 부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¹⁾

또한, 2023년에는 평안북도에서 수산물 도매상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기도 했다. 정주와 철산 장마당을 중심으로 냉동·마른 수산물과 젓갈을 실어나르던 차량들이 안전국 검열에 걸렸고, 수산사업소조차 배의 출항을 제약받았다. 당국은 도매상 가정의 전기를 끊어 냉동 수산물이 전부 상하게 만들기도 했다. 결국 상인들은 싼값에 물건을 내다 팔았고,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어 취조를 받았다. 이처럼 최근에는 뇌물과 편법에 의존하던 개인 유통망이 점점 더 좁아지고, 국가 기관 중심의 통제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²⁾

동향 분석

2015년만 해도 사정은 달랐다. 당시 동해안에서는 오징어잡이가 풍어를 이루면서 전국에서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임시 ‘바다출입증’만 있으면 누구나 어업에 나설 수 있었다. 많은 주민들이 집을 팔거나 고리대금을 빌려 오징어철에 뛰어들 만큼, 이 시기는 생계를 걸고 벌이는 ‘결정적 전투’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후 어업 통제 강화와 연료 가격 상승, 국가 유통망의 독점으로 개인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³⁾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부는 북한에서 ‘돈 잘 버는 직업’으로 손꼽혔다. 국가에 바쳐야 하는 몫만 채우면 나머지는 모두 개인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어획량이 많은 이들은 큰 부를 쌓을 수 있어 과거에는 천대받던 직업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뱃놈’이 아니라 ‘뱃님’이라 불릴 만큼 지역사회에서 인기가 높아졌다. 이러한 흐름은 2016년부터 전국 주민들이 동해안 오징어잡이에 몰려드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⁴⁾

국가 공급 체계와 여전한 문제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1년 12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도 평양시민들에게 수천t의 물고기를 보내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었다며 “위민헌신의 세계가 그대로 비껴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2025년 초 평양시의 명절 수산물 공급은 북한의 공식 유통 구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 2월 16일)을 맞

동향 분석

아 시 인민위원회는 모든 세대에 수산물을 3kg씩 나누어 주겠다고 공지하며, 이미 몇 달 전부터 대량의 수산물을 냉동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고 한다.⁵⁾ 이어 각 구역 인민위원회를 통해 배급표가 발급되었고, 시내의 수산물 상점들이 실제 배급 창구 역할을 맡았다. 단순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저울 눈금까지 일꾼들이 직접 확인하고, 상점 책임자들에게도 “뒷장난질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는 주민들에게 정해진 분량을 정확히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철저히 통제된 국가적 공급망을 상징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생활 보장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이 짙다. 당국은 이번 공급을 “장군님(김정일 국무위원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평양 시민들의 수산물 공급을 잊지 않았다.”라고 유훈을 강조하며 사상교양 사업으로 포장했다. 주민들이 받은 생선은 생활을 위한 식량인 동시에 수령의 은덕을 체감하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도구 셈이다. 결국 수산물 공급은 국가가 유통과 보관을 독점하는 상징적 장치이자,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반응은 달랐다. 냉동설비의 낙후와 관리 부실 탓에 상한 생선이 배급되는 일이 반복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냉소와 불신이 퍼져 나갔다. ‘은덕’이라며 사상교양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썩은 생선을 받아 든 주민들이 비웃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공식 유통 체계는 겉으로는 치밀하고 정치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재래식 보관·운송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냉장고 없는 경제의 단면

북한 수산물 유통 실태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2010년대 시장화에 따라 활발했던 개인 참여, 2021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강력한 통제, 단속과 검열, 그리고 국가 공급망(일명 선물)의 정치적 활용으로 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오징어철에 몰려들어 목돈을 벌려 했지만, 국가 통제가 강화되며 사실상 민간 유통망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국가가 독점하는 유통망과 낡은 냉동 설비, 그리고 이를 정치적 선전

에 이용하는 체제뿐이다. 결국 북한 주민들은 냉동고가 아닌 소금, 냉동차가 아닌 햇볕에 의존하며 생선을 지켜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식품 문제가 아니라, 북한 경제 구조 전체가 물려 있는 재래식 수준을 나타낸다.

북한 수산물 유통 실태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어업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냉장·냉동 시스템이 없는 낙후한 경제 구조, 권력과 뇌물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시장, 재래식 저장 방식에 기대는 생활의 복합적인 문제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대표는 2023년 12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된 면서 북한의 어업 활동이 재개됐지만 개인의 어업 활동과 수산물 유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정민, ‘자유아시아방송’, “[북한 통신] 곡물보다 비싼 생선… 북 주민 그림의 떡”, 2023년 12월 12일,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kfish-12122023142217.html
- 2) 정서영, ‘데일리엔케이’ “수산물 도매상들 활기 띠자 대대적 검열 나선 北…왜?”, 2023년 4월 28일, <https://www.dailynk.com/20230428-2/>
- 3) DailyNK, ‘데일리엔케이’ “北주민 집 팔고 오징어 잡이에 나서…동해 오징어 풍어”, 2015년 6월 29일, <https://www.dailynk.com/%E5%8C%97%EC%A3%BC%EB%AF%BC-%EC%A7%91-%ED%8C%94%EA%B3%A0-%EC%98%A4%EC%A7%95%EC%96%B4-%EC%9E%A1%EC%9D%B4%EC%97%90-%EB%82%98%EC%84%9C/>
- 4) DailyNK, ‘데일리엔케이’ “요즘 北 간부·어부·과부(3부)가 제일 잘나가 ㄴ”, 2012년 1월 27일, <https://www.dailynk.com/%EC%9A%94%EC%A6%98-%E5%8C%97-%EA%B0%84%EB%B6%80%EC%96%B4%EB%B6%80%EA%B3%BC%EB%B6%80%3%EB%B6%80%EA%B0%80-%EC%A0%9C%EC%9D%BC-%EC%9E%98/>
- 5) 정서영, ‘데일리엔케이’, “김정일 생일 앞두고 평양시 명절 공급…세대별 수산물 3kg씩”, 2025년 2월 13일, <https://www.dailynk.com/20250213-2/>

북한 알기

북한 문학예술에 표상된 풍어의 양가성

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yjs1369@kinu.or.kr

1. 들어가며

바다는 인류의 고향, 생명 탄생의 근원적인 의미이다. 고대인에게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해산물을 채취하고 수렵하며 생계를 이을 수 있는 곳이었다. 울산 울주군의 ‘반구대 암각화’는 고래사냥 그림으로는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그림이자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사람들, 사냥 도구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인류 문명과 함께 어로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북한 문학예술에서 바다는 예술영화 <월미도>(1982)처럼 전쟁의 물리적 공간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주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자원의 보고로 형상화되는 사례가 많다. 일반적으로 바다를 둘러싼 삶의 형태는 어부들의 어촌의 공동체 문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지역 음식 등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어로공(어부)은 주민의 바다 식량을 책임지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에 개개인의 삶은 ‘어획고’ 목표를 달성하는 형태로 형상화되곤 한다. 물고기를 식량으로 접근하는 관점은 북한의 오랜 패러다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시각적 표상과 언어적 표상을 통해 북한이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 특히 어업에 대한 정책적 시각과 생활 안에서 포착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 수산물 정책의 시각적 표상

1) 어획고 달성을 시각화한 우표

북한은 수산업 토대를 구축한 1960년대 생산량 증대를 핵심 과제로 제출했다.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표인데, 북한의 조선우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표는 1960년대 3종, 1970년대 2종, 2010년대

북한 알기

1종이었다. 이 중에서 수산업이 크게 성장했던 1960년대 우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수산물 어획을 장려하는 1961년, 1962년, 1963년 북한의 우표



출처: 조선우표 <<http://www.korstamp.com.kp>> (검색일: 2025.9.17.)

1960년대 3종의 우표는 ‘어획고 80만 톤’과 ‘여섯 개 고지’ 달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우표에 명시된 ‘여섯 개 고지’ 제하의 ‘수산물 80만 톤’ 목표는 1962년 제1차 7개년계획의 과업 수행을 위해 첫 3년 동안 수산업 부문에 제기된 노력 투쟁이다. 1961년과 1962년 우표는 그물 가득한 물고기를 들어올리는 모습으로 어획량 달성을 낙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963년 우표는 ‘풍어’기를 단 배를 뒤에 배치하고 그물을 끌어당기는 어로공을 앞에 넣었다. 이는 ‘수산물고기를 승리적으로 점령’한 어로공의 존재를 부각하여 북한이 국가적으로 그들의 공적을 치하하고 증산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 김정은 시대의 ‘황금해’와 ‘사회주의 바다항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며 수산업이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2015년에는 선전화, 우표, 판화, 유화 등 여러 시각예술 분야에서 수산업 정책을 주제로 표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미술창작사 소속 김광남의 선전화는 ‘풍어’, ‘물고기대풍’,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키워드로 넣었다. ‘황금해의 새 역사’ 표제어를 단 우표는 명태, 낙지, 오징어, 게 등 다종다양한 수산물이 그물 밖으로 터져나오는 이미지와 함께 ‘황금빛으로 물든 바다’를 표현하였다. 선전화와 우표는 2013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부대 관하의 수산사업소를 방문

북한 알기

한 후 선물했다는 어선 ‘단풍’호, 2014년에 군부대 관하 수산사업소를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대를 ‘황금해’ 역사 창조의 선구자로 칭한 것을 함축하여 시각화하였다.

〈그림 2〉 2015년 ‘물고기대풍’ 선전화와 ‘황금해’ 우표



출처: 김광남, 선전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자> (『조선예술』, 2015.5); 조선우표 <<http://www.korstamp.com.kp>> (검색일: 2025.9.17.)

2014년 ‘물고기대풍’ 기치는 2015년에 ‘황금해’로 동치되며 본격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수산업 정책을 상징하게 되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¹⁾ 하겠다고 표명하자 자연스레 시각예술의 주제로 자리잡은 것이다. 만수대창작사 창립 55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미술전시회에 출품된 전철우의 유화 <우리도 만선이예요>는 작은 조각배를 탄 여성들이 두 개의 양은 대야와 소쿠리에 조개를 한가득 채취하고, 큰 문어를 잡아 육지를 향해 ‘만선’을 외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표현했다. 또한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경축하는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한 중앙미술창작사 조흥육의 판화는 어로공들이 세차게 물방울을 튕기며 펄떡이는 물고기들을 잡아올리는 장면과 함께 여성 어로공은 앞바다에서, 남성 어로공은 먼바다에서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들이다.

〈그림 3〉 2015년 ‘황금해’ 아젠다를 반영한 미술 작품들



출처: 전철우, 유화 <우리도 만선이예요>(『조선예술』 2015.1); 조흥육, 판화 <황금해에서>(『조선예술』, 2015.12)

북한 알기

이 같은 작품은 어업에 종사하는 생활의 세부들, 해안 지역의 독특한 분위기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당의 정책에 부응하는 충성과 풍어의 결과물이 호응할 뿐이다. 실제로 풍부한 어장을 찾아 항해하는 어부의 여정은 평온하지 않다. 조용한 바다는 언제든지 불어닥칠 수 있는 거센 풍랑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희종의 서정시 <바다의 고백>(1960)에서 고기잡이하는 용감한 처녀가 만난 바다는 “눈볼 권 호랑이처럼” 울부짖고, “꿈을 찢어보려고” 태풍을 휘몰아오는 곳이다. 자연과 대결해야 하는 인간의 나약한 면모는 문학에서 순간적으로 포착되지만, 시각예술에서 고난의 순간은 수면 아래 깊이 가라앉아 있다.

3. 물고기대풍 이면에 숨겨진 결핍과 생활의 세부

1) SF 상상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식량난

북한에서 SF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자연을 정복해 나가는 인간의 활동과 투쟁을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과학환상’을 뜻한다. 바다와 물고기를 소재로 하는 두 편의 과학환상소설에서 북한의 결핍과 욕망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신승구의 과학환상소설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2011)은 동해 바다에 물보다 물고기가 더 많아서 수산사업소 지배인이 운송 문제를 고민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데려온 과학자 청년이 “하늘로 훨훨 날아가게 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내놓는다. 지배인은 청년을 동화와 현실도 구분하지 못하는 ‘반퐁이’라 생각했으나 청년은 우주 기지에 설치한 태양렌즈에서 ‘에네르기’를 받아 작동하는 ‘회오리수송관’을 만들어 물고기 떼가 날아가도록 만든다. 그런데 청년에게는 태생의 비밀이 있었다. 바다자원이 부족하던 시절, 바다에 산소를 주입하여 물고기가 넘쳐나게 만들던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연구사가 있었는데, 그 연구사가 바로 청년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물고기로 바다를 범람하도록 했고, 아들은 물보다 많은 물고기를 운송하는 장치를 만들어 모두에게 물고기를 공급했다.

한편,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의 ‘회오리수송관’이 까메오로 등장하는 리명현의 <대양어로>(2018) 또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과학환상소설이다. 이 소설은 우주비행기, AI 로봇 ‘대리인’, 500m 바다 밑에 해저관광여관

북한 알기

이 있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환경을 배경으로 해양생물자원개발연구소의 ‘어류자원연구실’에 소속된 주인공이 자연어종 증식 방안에 성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유전자변이 물고기가 위험하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주인공이 주민들이 외면한 맛 없는 “원종” 물고기 증식을 고민한다.

물고기 소비에서 양적 제한을 받지 않고 요구에 따라 아무 때나 먹고 싶은 물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요구는 이미 실현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요구수준이 또다시 높아져 이제는 그 다종의 물고기들이 다 원종과 꼭 같은 맛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있다.

— 리명현, 과학환상단편소설 <대양에로> 중에서(『조선문학』, 2018.2, p. 65)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은 만성적인 에너지난과 식량난에 처한 현실과 달리,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상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양에로>는 ‘황금해’로 상징되는 수산업 정책 중에서 바다 양식에 대한 과학적 상상을 보여준다. 다시마와 미역을 중심으로 바다 양식이 이루어지는 현실과 달리, 소설은 과학계 성공한 바다 양어를 선제적으로 다루고 있다. 게다가 ‘맛’과 ‘기호’를 따지는 풍족한 식생활은 북한 사회에서 결핍된 부분이다. 특징적인 것은 유전자변형 식품을 경계하면서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점이다. 두 편 모두 바다를 식량 자원이 풍부한 공간, 식량난이 해결된 근미래를 기반으로 한다. 소설의 구조는 리얼리즘을 추구하지만, 소설의 낙관적 전망은 사실상 현재의 식량난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일탈과 양심이 공존하는 어촌 생활의 세부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은 국가의 수산물 정책을 주제를 표현하지만, 어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정 풍경도 발견된다. 김창림의 단편소설 <어로공의 안해>(2018)는 갯 결혼한 ‘춘미’가 어로공 남편을 따라 어촌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어촌 마을에서 어로공 부인들은 “고기배는 고지에서 대포와 총이였고 그물은 거기에 재워지는 포탄이고 총탄”이라며 어선이 들어오면 밤새 ‘어구준비작업반’에서 그물을 수선하며 어로를 보조한다.

북한 알기

전통적으로 어촌 공동체는 어부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를 지내지만, 소설에서는 중앙예술단의 공연으로 대체한다. 또한, “바다날씨, 바람방향과 속도 그리고 파도높이… 해상경보소리만 나오면 막 속상하고 손에 일감이 잡히질 않아요, 고기배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이 와야 가슴속의 그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라는 춘미의 고백은 시각예술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어로공에 대한 가족의 불안과 염려와 함께 물고기를 빼돌려 사익을 취하는 일탈도 서술되어 있다.

고기배들이 들어오면 이래저래 새나가는 생산물이 있기 마련이야. 같은 값이면 그걸 제 가족들한테 넘겨주면 좀 좋아, 안 그래? 내가 앞에 나설테니 맘 놓구 잘해보라구. 아이구, 이젠 나이가 있어 그런지 어데 가서 뭘 좀 날라다 펴보자구 해두 이전 같지 않아.

— 김창림, 단편소설 <어로공의 안해> 중에서(『조선문학』, 2018.1, p. 43)

어구준비작업반에서 편망작업 혁신자였으나 “그물 자체를 망탕 잘라낸 일 본새를 두고 절약정신이 부족하다고 비판” 받은 후 걸돌았던 향숙은 춘미에게 수산협동에서 물고기를 직접 넘겨받아 ‘되거리’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춘미는 ‘황금해’ 족자와 군복을 함께 걸어두고 “만선의 풍어기”를 자신의 양심으로 삼은 남편에게 사실을 고하고, 향숙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작업반에 돌아온다. 소설은 작업반에서 기성세대는 <바다의 노래>를, 향숙과 춘미 세대는 <바다 만풍가>를 부르며 “물고기를 많이 잡아 우리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란 주제로 귀결된다. <바다의 노래>가 강원도 민요 <뱃놀이>를 북한의 음악적 문법에 맞게 개작한 노래라면, <바다 만풍가>는 수산사업소 물고기잡이 증산을 독려하는 모란봉악단의 2014년 신곡이다. 신구세대가 함께 두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화합과 풍어를 기원하는 모습이다. 소설은 되거리와 어촌 마을에서의 따돌림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행간에서 되거리를 통해 해결해 왔던 어민들의 생계문제, 폐쇄적인 어촌 마을 특유의 분위기, 휴식 없이 목표량 달성에 내몰리는 고된 노동을 읽을 수 있다.

북한 알기

4. 나가며

북한 문학예술에서 바다는 주민들에게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하고 도전해야 할 공간이었다. 북한의 수산업 정책은 달성해야 하는 어획고로 함축되고 문학예술은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형태로 이를 반영한다. 어획고는 어업 기술, 해상 조업 일수 및 선박 조건, 경제적 상호작용, 해상 날씨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목표로 제시된 숫자를 채우는 것은 육지 노동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우표, 판화, 유화, 문학 등에서 물고기 생산량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안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시각예술이 정책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표현한다면, 문학은 전달하는 메시지는 동일해도 언어적 행간에 생활의 세부를 노출하고 있다. 어로공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보다 최고지도자가 제시한 목표를 우선하고 있으나, 바다에 대한 경이감, 공포와 불안, 생존에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한편, SF 소설에서 과학기술로 풍부해진 동해 어장은 어획량 고갈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국민 식품이라 할 정도로 풍부했던 명태는 무분별한 남획과 수온 증가로 어종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두 편의 과학환상소설에서 어종을 풍부히 하는 문제가 대두된 이유는 바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작가와 예술가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보다 주체문예이론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체문예이론의 핵심은 수령에의 충실성, 혁명정신, 당 정책 등을 잘 형상화하여 대중의 마음을 울리고 설득하여 선동되도록 하는 정치적 목적성에 있다. 따라서 북한 문학예술에서 오랫동안 주제로 삼았던 풍어는 어촌 마을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획량은 생존을 위한 목표이며, 어획고를 올리기 위한 수산물 정책은 정권의 안정에 기여하는 전략이었다. 그렇기에 북한 문학예술에서 바다는 식량 자원의 공간이자, 정치적 공간일 수밖에 없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5.1.1.

북한 알기

단천의 이중주: 마그네사이트에서 마리나까지

강채연(국립통일교육원 교수)

kchy163@korea.kr

1. 들어가며

북한에서 해양도시라는 개념은 단순히 바다에 접한 도시를 넘어, 해운·수산·해양산업·환경적 요소가 결합된 종합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고 북한의 해양정책은 전통적으로 군사와 어업 중심에 치우쳐왔기에 도시 단위에서 해양성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사례는 드물다. 이런 측면에서 단천시는 북한의 숨은 해양도시로서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단천시는 동아시아 측면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도시이다. 세계 랭킹 세 번째에 달하는 대규모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을 보유한 광업도시이면서도 약 42.5km의 동해 해안선과 유리한 항만구조, 시설을 갖춘 매력적인 해양도시이기 때문이다.¹⁾ 이러한 이중적 특성을 바탕으로 단천시의 단순한 산업도시나 해양도시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²⁾ 단천시와 같은 산업·해양 복합도시의 발전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포항시가 철강 중심 산업도시에서 해양관광과 첨단산업을 융합한 복합도시로 전환한 사례는 단천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단천시는 포항과 유사하게 산업(자원·중공업)과 해양(항만·관광·수산·물류)이 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산업-해양 융합 도시 모델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21세기 해양시대에서 해양도시의 개념은 항만 기능을 넘어 생태친화적 해양경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그리고 평화기반의 해양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다.³⁾ 이 속에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해양개발 패러다임을 통해 ‘에코-마리나(Eco-Marina)’ 개념이 주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단천시의 산업-해양 도시로서의 구조적 특성과 미래전략을 에코-마리나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실질적 발전 가능성과 남북협력의 전략적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 알기

2. 단천시의 산업·해양 복합도시 특성

단천시는 함경남도의 북동부에 위치하여 동해안에 길게 펼쳐진 해안성과 굴곡진 지형이 특징이다. 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남대천과 북대천이 동해로 유입되어 자연적인 항만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2,170km² 중 86.1%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악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남부 해안지역으로는 단천평야가 발달하여 도시와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42.5km에 달하는 해안선의 길이는 비교적 단조로운 편이나, 오히려 대규모 항만시설과 해양레저시설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⁴⁾ 연평균 기온은 8.6°C, 연평균 강수량은 676.6mm에 이르는 온대성 기후는 연중 해양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단천시를 대표하는 경제적 기반은 마그네사이트 산업이다.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약 15억 톤으로 추정되는데,⁵⁾ 그중 약 8억 톤 이상이 룡양광산, 대흥청년영웅광산 등 단천시에 매장되어 있다. 연간 생산능력은 400만 톤에 달하는데, 특히 룡양광산에서만 연간 250만 톤을 생산하여 전체 생산량의 62.5%를 차지한다. 단천마그네사이트 공장(단천제련소)은 북한 최대의 마그네사이트 가공시설로, 원광 채굴에서 제품 생산까지 일관된 공정을 갖추고 있다. 생산제품은 내화재료, 화학공업 원료, 건설자재 등으로 활용되며 상당량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여기에 검덕광산은 남북한을 통털어 대 유색금속 광물 생산기지로, 주로 납정광과 세계매장량 5위에 달하는 아연정광을 생산한다.⁶⁾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이 이 지역의 돌산들을 ‘금산이며 돈산’이라고 말하는 주요 이유이다.

이처럼 단천시는 대규모 광공업의 특성상 대량의 원료와 제품을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단천항을 중심으로 한 해상물류 체계가 발달하였다. 이는 단천시가 단순한 내륙 광업도시가 아닌 해양 연계 산업도시로 발전하게 된 핵심 요인이다. 이러한 단천항은 북한 동해안의 주요 항만중 하나로 마그네사이트 전용부두를 비롯한 다양한 항만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로 단천항 신부두가 건설되는 등 지속적인 항만 확장을 통해 현재 5만 톤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단천항의 주요 기능은 마그네사이트 수출이지만, 연근해 어업 기지와 일반 화물 처리 기능과 함께 군사적·경제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그것은 동해안 중북부에 위치하여 해상 교역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항만과도 연결될 수

북한 알기

있는 지리적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천항은 줄곧 주요 유색금속 광물 수출 항구로 활용되어 왔는데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같은 전략적 자원의 해외반출 경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단천항은 해양 물류 허브로서 ‘북방 경제 벨트’와 연결될 가능성을 지닌다. 예컨대, 러시아 극동 지역 항만, 중국의 동북 3성, 한국의 동해항을 연결하는 삼각 물류망 속에서 단천은 중요한 교차점이 될 수 있다.

단천 연안은 동해의 전형적인 한류성 해역으로,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교차하고 있어 명태, 정어리, 오징어 등 냉수성 어종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북한의 수산업이 동해 한류성 어종에 크게 의존했던 점을 고려할 때 단천 해역은 북한 수산업의 핵심 기반 중 하나이다. 북한의 전체 수산업이 1980년대 이후로 생산량 감소를 겪고 있는 가운데 단천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어획량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 이는 동해 북부어장의 지리적 이점과 함께 중국이나 러시아 어선의 조업 영향을 덜 받는 연안 어업 중심의 어업구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어선어업 외에도 해조류 양식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다시마 양식은 단천 연안의 자연조건에 적합하여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 수산업에서 해조류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와 맞물려 중요한 북한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해양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단천시는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해양환경 보전에 있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제련소와 화학공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연안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어업 자원 감소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단천시의 가장 큰 약점은 산업도시로서의 환경부담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단천이 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 특유의 깊은 수심과 청정 해역은 해양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관광업 발전의 기반이 된다. 특히 명태, 대구 등 고급 어종의 서식지로 가치가 높아 자원 회복과 보전 노력이 지속될 경우 수산업 재도약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조류의 서식 환경도 우수하여 다시마, 미역 등의 자연 번식과 인공 양식 모두 활발한 편이다. 이는 해양바이오 산업과 친환경 양식업 발전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처럼 산업·해양 복합도시로서의 단천시의 장단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무엇일까? 바로 북한형 에코-마리나 모델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다.

북한 알기

3. 마그네사이트-마리나 융합 가능성

단천시의 미래 발전 전략은 산업(마그네사이트)과 해양(마리나) 기능의 조화로운 융합에 기초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포항시가 철강산업을 유지하면서 해양관광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킨 모델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포항이 철강산업을 유지하면서 해양관광·첨단산업을 병행한 사례처럼, 단천시에도 에코-마리나 모델을 접목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연안 일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생태관광·친환경 어업·해양교육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해양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환경관리 기술을 도입해 산업폐수·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국제기구 협력 프로젝트를 병행해야 한다. 물론 북한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의 원칙이 우선하겠지만,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현대화 발상이나 관광산업 장려정책, 여기에 ‘과학적 자력갱생’이라는 전략이 더해진다면 훨씬 더 나은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 교류나 다자 협력이 이뤄진다면 점진적인 환경 개선과 도시 전환 모델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별 로드맵과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구상해볼 수 있다. 먼저 1단계로 기존 산업의 친환경 전환이다. 즉 해양환경의 복원 및 보전 프로젝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마그네사이트 채굴과 가공 과정의 환경친화적 개선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단천 연안의 해양생태계 조사와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갯벌 복원, 해조류 서식지 보전, 연안 정화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해양산업, 또는 해양관광업 발전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된다. 2단계는 해양산업의 클러스터 조성문제이다. 대표적으로 단천항 일대에 수산가공, 해양바이오, 해양관광을 아우르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형태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연근해 어업을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현대화하고, 해조류 양식업을 확대하여 북한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항만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3단계는 복합 마리나 단지를 개발하는 전략이다. 단천시의 남부 해안을 따라 에코-마리나 시설과 해양레저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동북아 해양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다. 예컨대, 단천 남부 해안에

북한 알기

있는 단천 휴양소를 중심으로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장하고 마리나 시설과 연계한 종합적 해양레저 공간을 조성한다.

이러한 모든 개발 과정에서의 핵심원칙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단천시의 산업 구조적 특성상 환경 우선의 원칙에서 해양환경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마그네사이트 산업의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사이트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열을 해양양식업과 해양바이오 산업에 활용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추진전략, 즉 거버넌스와 사업방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스몰-스타트와 점증적 확장,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 협력의 단계화 등이 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즉 대규모 일괄 개발보다는 소규모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적응 시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협력과 남북협력 방안의 단계적 모델을 구상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사실상의 SWOT분석을 통해 단천시가 위치한 외생적 환경과 리스크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단천시는 세계적 수준의 광물자원과 완비된 산업 인프라, 그리고 동해 중심부의 우수한 해양 입지라는 독특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라는 기회와 결합할 때 동북아 해양경제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해양레저 관광 수요 급증은 단천시의 산업·해양 융합 발전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제공한다. 동해의 청정 해양환경과 친환경 트렌드의 확산은 에코-마리나 개발에 있어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제재와 투자 제약, 인프라 노후화, 전문인력 부족 등의 약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북핵 문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마리나 개발의 높은 투자 위험성⁷⁾ 등은 단천시 발전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인력을 결합하는 상생 협력 모델이 핵심적 해법이 될 것이다.

북한 알기

이러한 측면에서 단천시 남북 해양협력을 위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첫 번째, 단천 특별협력구역 구상이다. 2000년대 이후로 단천시에도 남북 해양수산 협력을 위한 거점으로 특별협력구역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⁸⁾ 이는 기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모델과 차별화된 산업·해양 융합형 협력 모델로, 마그네사이트 산업의 친환경 현대화와 해양관광·수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 해양협력은 서해에 비해 해상경계의 문제가 단순한 동해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단천 해역에서의 남북 공동어로사업은 양측 어업기술 교류와 수산자원 공동관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⁹⁾

두 번째는 기술·자본·인력의 융합 협력이다. 남한이 보유한 마리나 개발 기술과 해양관광 운영 노하우, 친환경 산업기술을 북한의 자원과 인력, 그리고 지리적 이점과 결합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마그네사이트 산업의 친환경 기술 이전, ②수산 양식업 공동 운영, ③마리나·해양관광 시설 공동 개발, ④해양수산 전문인력 교육 등이 주요 협력 분야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동북아 해양경제로의 허브 전략이다. 단천의 에코-마리나 개발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한반도 평화경제의 상징 프로젝트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단절된 동해안을 연결하는 해양관광벨트 조성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천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해양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동북지역 항만과 연계한 물류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과 수산업 협력, 일본 해양환경 보전 협력 등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기구(예컨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통해 친환경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제적 표준과 모범사례를 적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분단을 넘어선 단천의 이중주로

단천시의 복합 해양도시 발전 가능성과 마리나 구상은 북한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시사한다. 더 정확히는 산업과 해양의 조화로운 발전을

북한 알기

통해 단천시가 동북아 해양경제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 모델은 북한 내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선례이자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특히 환경과 경제, 평화와 발전이 하나로 어우러진 21세기 해양도시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남북협력을 향한 새로운 도약 속에는 몇 가지 핵심 정책 과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 첫째, 남북 해양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의 육상 중심 협력 모델을 해양 특성에 맞게 발전시킨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발 전략을 통해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 소규모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단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다. 넷째, 해양관광과 마리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기에 시작해야 남북 교육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동해의 푸른 바다 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물결이 재현된다면, 단천시는 그 물결의 중심에서 한반도 해양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단천의 이중주는 분단을 넘어 통합과 협력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한국학중앙연구원, 『단천시(端川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2, pp. 234-236.
- 2) OECD, *Ocean Economy in 2030*, OECD Publishing(2016), pp. 78-92.
- 3) 진희권, “북한 수산업의 변화와 특징: 생산량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6권 제4호(2024), pp.1266-1267.
- 4) 해양수산부, 『해안선 관리 현황』, (부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2023), pp. 89-91.
- 5) IRS Grobal, “2016년 국가별 마그네사이트 보유량”, 2018년 1월 5일.
- 6) 강채연, 『북한 도시 이해』 (서울: 바른북스, 2024), p.193.
- 7) 김남규·장승현, “국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내 마리나항만의 문제점 및 근원적 해결 방안”, 『해양정책연구』 제38권 2호(2023), pp. 38-44.
- 8) 홍성걸, 『북한내 특구를 거점으로 한 수산협력 추진방안』 (부산: 해양수산개발원, 2009), pp. 229-278 참고.
- 9) 손희두, 『북한의 해양관련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pp. 156-158.

북한 소식
(7~9월)

북한 해양·수산 기사 (2025년 7월~9월)

진희권(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hkjin77@gmail.com

<2025년 7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7월 2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봉사 시작	- 세계적 관광공원으로 일떠선 최상급의 명승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7월 1일부터 관광봉사 시작 - 첫날부터 평양, 강원도, 함경북도, 량강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인파로 만원
로동신문	7월 3일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완수	- 해양수산 관련 내용 발췌 - ‘평안남도수산물관리국’ 산하 ‘문덕수산물사업소’는 선진적 탐색기술을 도입, 어황에 맞는 어로방법으로 어획량 증대 - ‘함경북도수산물관리국’ 산하 ‘김책수산물사업소’, ‘청진수산물사업소’는 해양조건과 물고기 회유상태에 맞는 어로방법 전개해 생산량 증대 -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자는 당의 뜻에 따라 ‘웅진 바다가양식사업소’, ‘구미포수산물사업소’에서는 과학적 비배 관리와 선진적 양식방법 도입해 바다나물 수확량 증대
로동신문	7월 4일	갈마반도의 명사십리에 세계굴지의 해안관광도시, 인민의 문화휴양지가 훌륭히 일떠선데 대하여	- 해안지대의 특성에 맞게 각종 시설이 건축미를 이루고, 관광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관광산업의 대표작이자 사회주의 문명의 척도 - 사회주의 문명개화의 실체를 보란 듯이 일떠세워 노동당 시대의 투쟁 본때, 특유의 무진한 발전잠재력, 우리식 발전 속도를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 - 김정은 총비서는 2018년 신년사에서 아름다운 해변가에 인민의 문화 휴식터를 꾸릴 구상을 밝히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과업을 제시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계획은 근 2만명 숙박 능력의 호텔·여관 등 숙소와 종합청사, 관광안내소, 재정금융사, 건강운동관, 극장, 영화관, 야외물놀이장, 봉사건물, 관리건물 등 수백 동의 건물을 세워야 했으며, 연건평은 약 114만 9,100㎡에 이릅니다
로동신문	7월 10일	바다가양식장 건설 마감단계	- 함경북도 명천군 ‘보촌수산사업소’에서 바다가양식장 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추진 중
로동신문	7월 14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 7월 13일, 김정은 총비서,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장 현지지도 - 김정은 총비서는 향후 연차별로 시, 군별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을 계획 수립을 지시 - 김정은 총비서는 바다가양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실리성과 효과성을 중시하고 방파제 등 해안구조물 건설의 합리성 제고 등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을 대대적으로 전개할데 대한 방향 제시
로동신문	7월 14일	남포시에 와우도유원지를 개건, 봉사 시작	- 남포시에서 ‘와우도구역’ 유원지의 물놀이장과 해수욕장, 봉사시설, 도로 등을 개건
내나라	7월 14일	바다가양식에 유리한 조선동해	- 조선동해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여러 만이 있어 바다양어와 양식에 유리 - 전반적 수역이 맑고 물흐름이 좋으며 바다밑 지형이 해안 가까이 까지 비교적 깊어 양식장을 해안 가까이 전개 가능 - 대표적으로 해삼, 성게, 밥조개, 피조개, 함박조개, 전복 등을 양식 - 라선시 앞바다는 평균수심과 저질조건이 밥조개 양식에 유리, 두만강 하류 주변의 바다자리 호수는 굴양식에 유리,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에는 해삼, 성게가 많이 분포, 함경남도 락원군 앞바다에는 밥조개와 해삼, 전복과 어린 미역 등 바다나물이 풍부
민주조선	7월 17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관광예약 급증	- 7월 1일부터 관광이 시작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관광예약 급증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조선국제려행사’, ‘조선국제체육려행사’, ‘조선청년국제려행사’, ‘평양고려국제려행사’, ‘항공려행사’, ‘모란봉관광사’ 등 관광 조직 단위에서 여객기와 열차, 버스로 당일, 2박 3일, 4박 5일 관광을 조직
민주조선	7월 17일	금강산이 세계문화 자연유산으로 등록	-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금강산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할 것을 결정
로동신문	7월 22일	남포조선소에서 다음해 당창건 기념일까지 <최현>급 구축함 3호함 건조를 결의	- 7월 21일, ‘남포조선소’에서 <최현>급 구축함 3호함 건조를 위한 종업원 결기모임 진행 - 모임에서는 <최현>급 구축함 3호함 건조 시작이 선포되었으며, 2026년 10월 10일까지 구축함 건조를 마칠 것을 결의
로동신문	7월 24일	종어장건설 마감단계, 황해남도수산물관리국에서	- ‘황해남도수산물관리국’에서 종어장 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추진 중
로동신문	7월 24일	통천군 자산해수욕장 준공	- 7월 23일, 강원도 통천군, ‘자산해수욕장’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7월 2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부대 후방기지를 찾으시고 논판메기양어실태를 료해하시였다	- 7월 24일, 김정은 총비서, 논판양어를 장려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인민군 군부대 후방기지 방문 - 해당 부대는 논판양어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해 사료 단위를 대폭 낮추면서도 증체율을 높여, 정보당 70 톤 이상의 메기를 생산 -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식의 논판양어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규범화, 표준화할 것을 지시
로동신문	7월 26일	서해갑문해수욕장 개건, 물놀이장 증설	- 남포시, ‘서해갑문해수욕장’과 물놀이장 개건 및 증설 공사 완료
로동신문	7월 31일	해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 7, 8월 해양체육월간을 맞아 각지 학교에서 당의 대중체육 방침에 따라 해양체육활동 활발하게 전개

<2025년 8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8월 3일	바다나물종합가공장이 건설된다	- 황해남도에서 연건평 수 천㎡ 규모의 바다나물 종합가공장 새로 건설
로동신문	8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모범적단 단위들에 3대 혁명붉은기 수여(해양수산 관련 수상 단위 발체) - 2중3대 혁명붉은기: ‘단천선박공장’
민주조선	8월 5일	수백개의 농장들에서 논판메기양어 도입	- 올해 함경남도에서 약 400개의 농장에서 논판양어를 도입하여 물고기 생산
로동신문	8월 6일	젓갈가공공장건축공사 완성, 설비제작 및 조립 힘있게 추진	- 평안남도 ‘한천수산사업소’에서 젓갈가공 공장 개건 현대화 진행 중
민주조선	8월 8일	물놀이장 건설을 힘있게 추진	-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물놀이장 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행
로동신문	8월 10일	당정책을 받들어 논판양어를 적극 장려하자	- 지난 7월 24일 김정은 총비서가 인민군 부대 후방기지를 찾아 논판양어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 해당 부대는 정보당 60~70 톤의 메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견 - 논판양어는 알곡 생산과 물고기 생산을 다 같이 늘일 수 있는 양어방법. 공업적 방법 양어에 비해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생산량을 높일 수 있음
로동신문	8월 10일	전국논판양어 보여주기 및 기술전습회 진행	- 8월 7~8일,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농장’에서 ‘전국논판양어 보여주기 및 기술전습회’ 진행 - 당중앙위원회와 각 도당위원회, 내각과 농업위원회 등 관계부문 일군과 기술자 등 600여 명 참가
내나라	8월 11일	바다오염 및 해난사고방지를 위한 측정수단들 개발	- ‘국가해사감독국 중앙해양환경보호조종소’에서 바다오염 및 해난사고 방지를 위한 측정 수단 개발 - ‘중앙해양환경보호조종소’에서는 연유의 인화점과 류황농도, 오수의 오염도를 판정하는 측정기를 개발하여 전국에 도입
로동신문	8월 13일	혁명학원 원아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었다	- 8월 9일 ‘만경대혁명학원’, ‘칠골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새날혁명학원’ 등의 혁명가 유자녀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도착해 해안관광활동 진행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8월 17일	재령군 삼지강농장에서는 인민군군부대 후방기지의 경험을 본받아 논판양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얼마전 ‘전국논판양어보여주기 및 기술전습회’가 진행되었던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농장’에서는 인민군의 논판양어 경험을 본받아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 논판양어 포전에서는 비료와 농약을 치지 않아도 되고 김을 맬 필요도 없으며, 지력 개선에 도움이 됨
로동신문	8월 1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시고 함의 무장체계통합운영시험 과정과 해병들의 훈련 및 생활정형을 료해하시였다	- 8월 18일, 김정은 총비서,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해 함의 무장체계통합운영 시험 과정과 구축함 해병들의 훈련 및 생활정형을 요해 - 김정은 총비서는 8,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을 완결하고 계획대로 10월 중, 다음 단계인 함의 성능 및 작전수행 능력 평가를 진행할 것을 강조 - 김정은 총비서는 해군의 작전능력을 초급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공화국 무력 발전 견지에서 보나 국가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초한 군사학적 견지에서 보나 순간도 늦출 수 없는 최중대 국사라고 강조
로동신문	8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7차전원회의 진행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양생태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
민주조선	8월 20일	항만수송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주력-륙해운성에서	- ‘륙해운성’에서 항만 수상 운수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 - 얼마 전 흥남항의 1호 부두와 1호 호안 보수, 2호 호안 공사 결속. 남포항에 짐함 처리 능력을 2배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짐함문형기중기’ 설치. 청진항 동항과 서항, 원산항 개건 현대화 진행 중
로동신문	8월 2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를 돌아보시였다	- 8월 26일, 김정은 총비서, 완공된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를 방문 - 김정은 총비서는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을 가까운 시일 내에 뜻깊게 진행할 것을 지시
로동신문	8월 31일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	- 8월 30일,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이 김정은 총비서의 참석 하에 성대하게 진행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김정은 총비서는 양식업에서 관건은 종자라며, 당의 종자 혁명 방침을 일관할게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양식업의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에 대한 과업 제시

<2025년 9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9월 1일	논판양어의 새 출발을 하였다	- 평양 만경대구역 '칠골남새농장'의 논판양어 성과 소개
로동신문	9월 3일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8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 해양수산 관련 내용 발췌 - '양화수산사업소', '송도원수산사업소', '홍원수산사업소', '서호수산사업소'에서 변화하는 어장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어로방법을 사용해 높은 실적을 기록
로동신문	9월 5일	온 나라의 축복과 경탄속에 락원포 어촌문화주택 입사모임 진행	- 9월 4일, 락원포 어촌문화주택 입사모임 진행
로동신문	9월 11일	포전에 펼쳐진 흐뭇한 양어풍경	- 황해남도 청단군 '신생농장'의 논판양어 성과 소개
로동신문	9월 13일	논판양어에 대한 기술강의 진행	- 9월 12일,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조선농산기술 협회'와 '조선수산협회'의 공동주최로 논판양어에 대한 기술강의가 화상으로 진행 - 전국의 도, 시, 군 농업지도 기관과 농장 등에서 3,000 여 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간부들이 참여 - 기술강의에서는 원가를 줄이면서도 알곡과 물고기 생산을 다 같이 늘일 수 있는 논판양어 생산체계를 주로 소개
로동신문	9월 14일	다영양종합양식	- '다영양종합양식'은 먹이를 순환 이용해 영양 요구 수준이 다른 양식대상을 입체적으로 양식해 먹이 소비와 수질오염을 줄 이고 질병을 예방하고 생산량을 늘일 수 있는 생태양식 기술 - '다영양종합양식'에서는 영양 요구 수준이 높은 양식대상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의 먹이 찌끼와 배설물, 물속의 영양물질을 영양 요구 수준이 낮은 양식대상의 먹이로 이용하므로 물고기, 새우, 게, 조개, 바다나물 등을 함께 양식할 수 있음
로동신문	9월 18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미술기념품전시회 개막	- 9월 17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미술 기념품 전시회 개막 - 전시회에는 '만수대창작사'를 비롯 전국의 미술 창작기관과 민예품 제작 단위에서 창작한 20여 종, 2,500여 점의 작품이 출품 - 전시회 기간, 작품 창작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류 사업과 기념품 판매도 진행
로동신문	9월 20일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높여	- '서흥범안양어사업소'의 성과 소개 - 메기의 증체율과 면역기능을 높이고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 생육 단계별 먹이 처방을 과학적으로 적용하고 뽕물등에, 우렁이, 큰단백풀 등을 활용한 단백질 보충사료 보장체제 확립해 생산량을 늘리고 원가를 대폭 낮추었음
로동신문	9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 연설 중 해양수산 관련 내용 발췌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손색없이 완공되어 전국의 인민들이 찾아가 휴양을 시작하는 등 우리식의 새 문명을 상징하고 우리 국가의 비약적 전진상을 체감케 해주는 창조물이 수많이 일떠서고 있는 것은 괄목할 성과 -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대시키는데 큰 밑천을 확보해주고 지방을 변혁시키는데서 실제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 문화주택지구가 반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 - 당의 해군 무력 강화 노선에 따라 다각적인 해상 군사임무 수행이 가능한 구축함을 성과적으로 건조해 해양주권 수호의 전략적 축을 든든하게 축성하고 해양강국 건설에서 중대한 첫걸음을 뗐음 - 바다를 낀 도에서는 바다가 양식기지를 계획적으로 전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자기 지방의 면모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민주조선	9월 22일	년간 고기배무이 과제수행 마감단계	- 수산 부문에서 연간 고기배무이 마감단계 진입 - ‘화진수산사업소’, ‘운전수산사업소’, ‘문덕수산사업소’, ‘가마포수산사업소’, ‘홍원수산사업소’ 등에서 높은 실적 기록
로동신문	9월 23일	애도가 조국의 대지에 안겨온다	- 평안북도 애도 간석지 건설 1구역 공사, 1차 물막이 공사를 끝내는 등 90% 달성 - 1구역 공사가 완공되면 수 천 정보의 새땅이 생겨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
로동신문	9월 23일	<원산갈마료리축전-2025> 개막	- 9월 22일,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가 주최, ‘원산갈마료리축전-2025’ 개막 - 행사에는 평양 및 각 지역의 급양봉사 부문, 대외봉사 부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봉사 부문 등 100 여 개 단위 참가

북한 소식
(7~9월)

NK News 북한 해운·항만 기사

정다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dhj82@kmi.re.kr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7월 31일	Sanctioned North Korean tankers sail freely in Chinese waters, defying UN rules	-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유조선들이 7월 중국 해역에서 AIS 신호를 송출하며 항해했으며, 연료를 수급하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추정 - 식별 선박은 다음과 같음. Song Won 2(IMO 8312497), An San 1(IMO 7303803), Kum Jin Gang 3(IMO 8791667), Sin Phyeong 9(IMO 8916293), Chong Ryong San(제재 비대상·IMO 미부여, 과거 불법 환적 보고 사례) - 항행 지역은 타이완 해협부터 닝보·저우산 인근까지 중국 남동연안 구간에서 신호 송출 확인 -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1·2397호 입항 금지, 나포·검사·압류 및 유류 반입량 보고 의무와 실제 집행 간 괴리가 지속되는 상황 - 북한의 연간 유류 수입 상한은 50만 배럴이며, 2025년 1~2월 중국의 공식 보고는 합계 2만 배럴 미만, 러시아는 2024년 1월 이후 미보고 상태 - 2024년 북한 탱커 선대 유입량이 100만 배럴을 상회해 연간 상한(50만 배럴)을 크게 초과했을 가능성 제기 - 전문가들은 제재 이행 약화와 복려 밀착의 효과로 평가
8월 29일	Satellite imagery points to lull in North Korea-Russia arms smuggling operation	- 7월 나선항 러시아 선박 입항 최소 2회(7월 9일 Maria 추정, 7월 23~24일 Angara 또는 Lady R 추정), 8월에는 감소 정황 - 8월 초, 탄약 적재로 추정되는 컨테이너가 픽업 부두에서 사라지고 인접 하역 부두에 추가 컨테이너가 나타남. 저해상도·악천후로 선박 식별은 불가하나, 미탐지 입항 가능성 시사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최근 수개월 보스토티니항 주 부두에서 관여 선박 미포착. 'Maia-1'은 이탈, 'Angara·Lady R·Maria' 중심 운항 정황 - 한국 정부는 25년 7월 북한이 러시아에 152mm 포탄 약 1,200만 발 분량의 컨테이너 2만 8,000개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24년 12월 추정치(2만 2,000개, 1,000만 발)보다 증가한 수치 - 김정은 국무위원장 훈장 수여 보도에 북한군의 60mm 박격포, 107mm 견인형 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MLRs), 소총, 대전차 로켓 운용 장면 포함
9월 23일	UK warship carries out North Korean sanctions monitoring mission near Japan	- 영국 해군의 Type 23 프리깃함 HMS 리치먼드(HMS Richmond)가 2025년 9월 초~중순, 일본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ship-to-ship transfer) 활동을 감시하는 UN 제재 이행 작전 수행 - 본 작전은 영국 항공모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함의 인도-태평양 순항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 - 리치먼드 함은 8월 대한민국 부산항에 기항한 이후 일본 주변 해역으로 이동하여 일본 측의 제재 위반 의심 선박 감시에 협조 - 이는 2018년 이후 14번째 영국 해군의 UN 제재 감시 임무이며, HMS 스페이(Spey), 타마(Tamar)와 함께 영국의 인도-태평양 상시 전개 전력의 연장선상 - 영국 국방부는 이번 작전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일환이라고 강조 - 북한은 이러한 감시 활동을 미국 주도의 자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반발